마틴 로이드 존스 『산상설교』 하 (문창수·안광현 옮김, 베드로서원)

34장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산상설교』 하권 제34장, 인쇄 52~65쪽 · 설교 본문 마태복음 6:9

❓ 기도를 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

🧭 흐름 한눈에

로이드 존스는 기도가 그리스도인이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숭고하고 가장 어렵다는 데서 출발한다. 그래서 기도는 신앙의 진짜 상태를 드러내는 시금석이다. 이어 주기도가 하나의 '모범 기도'라고 설명한다. 기도의 모든 원칙이 그 안에 뼈대처럼 들어 있다는 뜻이다. 주기도는 율법에 속한 것이라 그리스도인과 상관없다는 반론에는, 주기도가 은혜로 가득하고 오늘의 그리스도인을 위한 기도라고 답한다. 그다음 기도의 첫걸음은 간구가 아니라고 말한다. 먼저 멈추고 자기가 누구 앞에 있는지 떠올리는 것이 첫걸음이다. 마지막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부름을 푼다. '우리 아버지'가 주는 친밀함과 '하늘에 계신'이 주는 경외를 반드시 함께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 결론이다.

📜 절별 정리

📜 1. 기도는 가장 숭고하고 가장 어려운 일이다

로이드 존스는 앞 단락(마태복음 6:5~8)을 먼저 되짚는다. 주님은 사람에게 보이려는 외식(겉으로만 경건한 척하는 것)과 중언부언(같은 말을 의미 없이 되풀이하는 것)을 경고하셨다. 그런 다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며 방법을

몰입한 사람 앞에서는 빛이 바랜다. 그런데 기도는 가장 어렵기도 하다. 구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너그러운 성품만 있으면 할 수 있고, 절제 같은 자기 훈련도 마찬가지다. 그는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이 기도보다 훨씬 쉽다고 고백한다. 사람에게 말하기가 하나님께 말하기보다 쉽기 때문이다. 공중기도는 회중을 의식하다 보면 하나님보다 회중에게 말하게 될 위험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홀로 설 때는 꾸밀 수가 없다. 그래서 은밀한 기도가 영적 상태를 재는 최종 기준이 된다. 역사 속 가장 성자다운 사람들은 은밀한 기도에 많은 시간을 쏟았고, 그 시간을 즐거워했다. 세례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새벽과 온 밤을 기도로 보내시는 주님을 보며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라고 청했다. 그들은 몇 분만 지나면 할 말이 바닥났기 때문이다. 기도에 목마름을 느끼는 것은 좋은 징조다.

1. 기도는 영혼의 가장 숭고한 활동이다
2. 구제·절제보다 기도가 훨씬 어렵다
3. 홀로 드리는 기도가 영적 상태의 시금석이다
4. 성도들은 은밀한 기도를 오래, 즐겁게 했다
5. 기도를 배우고 싶은 갈증은 좋은 징조다

> **마태복음 6:9**
> 설교 본문. 주님이 기도의 방법을 직접 가르치신다
>
>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 **마가복음 1:35**
> 새벽에 기도하신 주님. 제자들이 기도를 배우고 싶어 한 배경이다
>
>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 **누가복음 6:12**
> 밤새 기도하신 주님. 기도에 쏟은 시간의 예다
>
> 이 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세례 요한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의 요청이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매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사람이 하나님께 말할 때 그는 그의 정점에 있는 셈입니다."

📜 2. 주기도는 모범 기도다: 모든 원칙을 담은 뼈대

로이드 존스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큰 복을 놓치는 이유를 올바로 기도할 줄 모르는 데서 찾는다. 그래서 '어떻게'와 '무엇을' 기도할지 배워야 하고, 주기도가 바로 그 완전한 교훈이라고 말한다.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소개하신 방식이 주기도가 모범 기도(a pattern prayer)라는 증거다. 주기도에는 덧붙일 원칙도, 모자란 원칙도 없다. 그렇다고 주기도만 되풀이하라는 뜻은 아니다. 주님 자신이 여러 밤을 기도로 새우셨기 때문이다. 요한 웨슬리는 매일 적어도 네 시간씩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을 변변찮게 여긴다고 말하곤 했다. 로이드 존스는 자기 설교 메모를 예로 든다. 그는 강단에 완성된 원고가 아니라 몇 개의 표제만 들고 올라간다. 그리고 그 표제를 풀어 설교한다. 주기도도 이런 뼈대이고, 우리는 그 원칙을 확대해 모든 간구를 그 위에 세운다. 가장 긴 기도도 주기도의 원칙으로 간추릴 수 있다.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적 기도도 그렇다. 그래서 어거스틴과 루터는 성경에서 주기도보다 놀라운 것이 없다고 했다. 몇 문장에 모든 것을 압축한 간결함은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낸다.

1. 기도를 몰라 큰 복을 놓친다
2. 주기도는 모든 원칙을 담은 모범 기도다
3. 반복용 문구가 아니라 확대할 뼈대다
4. 긴 기도도 주기도 원칙으로 간추려진다
5. 그 간결함이 하나님의 아들을 증언한다

>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요한복음 17:1

가장 긴 주님의 기도도 주기도의 원칙으로 축소된다는 예다

>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 3. 주기도는 율법이 아니라 오늘의 그리스도인을 위한 은혜의 기도다

로이드 존스는 주기도를 둘러싼 반론을 다룬다. 첫째 반론은 교리적인 것이다. 주기도는 은혜가 아니라 율법의 영역에 속해 그리스도인과 상관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용서 간구에서 우리 죄 용서가 우리가 남을 용서하는 것에 달린 것처럼 보이니 율법이라고 한다. 이들은 “우리는 은혜 시대에 산다”며 주기도를 넘어섰다고 여긴다. 그는 산상설교 전체에 대해 늘 해 온 말로 답한다. 산상설교는 당시 제자와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을 위한 말씀이다. 5장의 율법 가르침으로 자신을 판단해야 했듯이 “이렇게 기도하라”도 정면으로 받아야 한다. 둘째 반론은 주기도에 '예수의 이름으로'가 없으니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는 주님이 여기서는 원칙만 세우셨고,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뒤에 따로 분명히 가르치셨다고 답한다. 게다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니, 그 이름은 처음부터 암시되어 있다. 공중예배에서 주기도를 외우는 문제는 견해가 갈릴 수 있다고 인정한다. 그러나 마음으로 드린다면, 자주 기억할수록 모든 원칙을 빠뜨리지 않게 된다. 주기도를 깎아내리는 것을 참된 복음주의의 품질보증서로 여기거나, 함께 외우기를 거부해 영적 교만에 빠져서는 안 된다. 주님의 율법 풀이가 율법이 은혜로 가득함을 보여 주었듯이, 주기도도 영적으로 이해하면 은혜로 충만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가진 사람만 주기도를 바로 이해한다.

1. 산상설교는 모든 시대 그리스도인의 것이다

4. 주기도 무시는 복음주의 표지가 아니다

5. 주기도는 은혜로 가득한 기도다

> **마태복음 6:12**
> 반론자들이 '율법'이라며 걸려 넘어지는 용서 간구다
>
>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 **마태복음 6:9**
> '우리 아버지'라는 부름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암시되어 있다
>
>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 4. 기도의 첫걸음: 입을 가리고 먼저 하나님을 부르라

로이드 존스는 이제 '어떻게' 기도할지로 넘어간다. 많은 사람이 기도해도 아무 일이 없고 평안도 만족도 없다고 말한다. 원인은 대부분 접근법이 잘못된 데 있다. 우리는 무릎 꿇자마자 자기 문제부터 쏟아 낸다. 주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그런 기도에서는 아무 일도 기대할 수 없다. 로마 가톨릭이든 개신교든 영적 생활의 위대한 교사들은 기도의 첫 단계가 '회상', 곧 내가 누구 앞에 있는지 떠올리는 것이라는 데 일치했다. 그 예가 욥이다. 욥은 고통 속에서 많은 말을 쏟아 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셨을 때 손으로 입을 가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기도를 시작하라”고 권한다. 근심에 짓눌리면 아이처럼 곧장 입을 열고 싶은 마음은 그도 안다. 그래도 하나님의 영원한 팔을 느끼고 싶다면 잠시 멈춰야 한다. 마음 깊이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기도는 어떤 의미에서 이미 응답받은 것이다. 그는 기도에 대한 두 가지 잘못된 생각도 물리친다. 하나는 기도가 심리적으로 도움이 되니 유익하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성경의 기도는 나를 잊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짧게 요구만 딱 말하는 것이 높은 영성의 표시라는 생각이다. 성경에는 이런 '장사꾼식' 기도가 하나도 없다. 성경의 기도는 아무리 절박해도 모두 하나님을 부르는 말(invocation)과 경배로 시작한다.

명령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경배로 기도를 시작했다. 요한복음 17장도 그렇고, 바울도 “감사함으로” 구하라고 순서를 정해 주었다.

1. 기도 불만의 원인은 대개 잘못된 접근이다
2. 첫 단계는 간구가 아니라 회상이다
3. 욥처럼 먼저 손으로 입을 가리라
4. 기도는 심리 요법도 장사 거래도 아니다
5. 성경의 기도는 모두 경배로 시작한다

> **욥기 40:4**
> 하나님 앞에서 입을 가린 욥. 침묵으로 시작하는 기도의 본보기다
>
>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 **다니엘 9:4**
> 곤경 속에서도 찬양으로 시작한 다니엘의 기도다
>
>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 **예레미야 32:17**
> 이해 못 할 명령 앞에서도 경배로 시작한 예레미야의 기도다
>
>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 **요한복음 17:1**
> 주님의 기도도 “아버지여”라는 부름으로 시작한다
>
>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간구는 감사와 함께 드린다는 순서를 보여 준다

>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 5. "우리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 부를 수 있는 이름

로이드 존스는 교리 문장 하나를 세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사람만 '우리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다. 팔복의 사람만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뜻이다. 그는 이 교리가 인기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성경의 교리라고 말한다. 반론으로 사도행전 17장의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를 들어 하나님이 만인의 아버지라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그 구절을 분석하면 바울은 하나님을 만물과 만인의 창조주로 말하고 있다. 사람은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식', '이 세상의 자녀'로 태어난다. 이 영역에서 옮겨져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데, 그 길은 입양뿐이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양자의 영을 받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세상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한다. 절망 속에 기도할 때 아버지께 말한다는 확신이 없고, 하나님이 자기를 대적하신다고 느낀다. 하나님의 부성을 말할 뿐 양자의 영은 없는 것이다. 핵심은 이 말을 입으로 하느냐가 아니다. 그것을 의식하고 믿고 체험하느냐다. 신앙고백의 최종 기준은 확신을 가지고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느냐다.

1. 신자만 '우리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2. 행 17장은 창조주를 말한 것이다
3. 하나님의 자녀는 입양으로만 된다
4. 세상의 '만인 부성론'엔 확신이 없다
5. 기준: 확신으로 '나의 아버지'라 부르는가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에베소서 2:3

사람은 본래 '진노의 자녀'로 태어난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로마서 8:15

양자의 영으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 입양 교리의 기둥이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 6. "하늘에 계신": 친밀함과 경외를 함께 붙들라

주님은 '우리 아버지' 바로 뒤에 “하늘에 계신”을 붙이셨다. 로이드 존스는 이 두 구절이 늘 함께 가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의 아버지 개념은 자주 타락해 있어 바로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바울이 즐겨 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는 표현도 같은 역할을 한다. 그가 드는 예화가 있다. 술주정뱅이에 아내를 때리고, 아이는 굶는데 돈을 제 욕심에 쓰는 아버지를 둔 소년이다. 이 아이에게 하나님이 네 아버지라고만 하고 내버려 두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인간의 일그러진 부성관은 늘 교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그분의 위엄과 광대하심, 전능하심을 떠올리고 낮아진 마음으로 무릎 꿇어야 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다윗이 고백했듯이 하나님은 중심의 진실을 원하신다. 복을 원한다면 절대 정직해야 한다. 하나님은 벌하실 권리와 복 주실 권리를 다 가지셨다. 그분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 그분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소멸하는 불이시다. 그러나 이 전능하신 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가 되셨다. 그분의 전지하심은 아버지가 자식을 아는 앎이다. 그분은 자녀에게 무엇이 유익한지 아시고, 모든 탄식을 들으시며, 우리의 행복을 누구보다 원하신다. 그분은 구하거나 생각하는

그리스도 안에 넣으셨다. 그러므로 무엇을 구하기 전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 전에도, 먼저 이 아버지 앞에 있음을 인식하라는 것이 결론이다.

1. '우리 아버지'와 '하늘에 계신'은 한 쌍이다
2. 일그러진 인간 부성관은 교정이 필요하다
3. 하나님은 다 아시니 절대 정직하라
4. 그분은 거룩한 소멸하는 불이시다
5. 동시에 넘치게 주려 하시는 아버지시다

에베소서 1:3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복을 주신다

>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히브리서 4:13

만물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듯 드러난다. 정직해야 하는 이유다

>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시편 51:6

하나님은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신다

>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전도서 5:2

하나님은 하늘에, 우리는 땅에 있다. 경외의 근거다

>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니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나아가야 한다

28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29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에베소서 3:20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게 주시는 아버지시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 두 구절은 항상 합쳐져야 합니다."

⚖️ 오해와 반론

📖 용어

주기도(주기도문)

주님이 마태복음 6:9~13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다.

모범 기도

그대로 외우는 문구라기보다 모든 기도의 원칙을 담은 본보기 기도다.

외식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겉으로 경건한 척하는 것이다.

중언부언

의미 없이 같은 말을 되풀이하며 말의 양으로 응답을 얻으려는 것이다.

시급성

금의 진짜 여부를 가리던 돌로, 여기서는 신앙의 진짜 상태를 드러내는 최종 기준이다.

회상
기도의 첫 단계로, 말하기 전에 내가 누구 앞에 나아가는지 떠올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부르는 말(invocation)
간구에 앞서 하나님을 부르고 경배하며 찬양하는 기도의 시작 부분이다.

입양(양자 됨)
본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던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대제사장적 기도
요한복음 17장에서 주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을 위해 드리신 기도다.

• 점검 질문

💬 청년의 삶으로

✅ 이 장의 결론

- 기도는 영혼의 가장 숭고한 활동이자 영적 상태를 재는 시금석이다.
- 주기도는 모든 기도 원칙을 담은 모범 기도이고, 오늘의 그리스도인을 위한 은혜의 기도다.
- 기도는 간구가 아니라 멈춤과 경배, 하나님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한다.
- '우리 아버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입양된 사람만 확신 있게 부를 수 있는 이름이다.
- '하늘에 계신'이 친밀함을 경외로 바로잡는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동시에 넘치게 주려 하시는 아버지이심을 함께 붙든다.

빛다방 학습 노트 · 마틴 로이드 존스 『산상설교』(베드로서원, 문창수·안광현 옮김)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입니다.